

# 소상공인 지킴이 노란우산공제 중간 해지 급증

광주·전남 올 2645건... 지난해보다 34.7% 증가  
경영악화 주원인... 폐업 1935건·임의 해약 665건

#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8년째 자영업자를 하는 A(48)씨는 "골목 상권 침체에 최저임금 문제까지 겹쳐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며 "생활비 때문에 지난해 보험을 해지했는데, 올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노란우산공제마저 해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내수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마지막 보루인 '노란우산공제'마저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만 해지 건수가 매달 400건에 달하는 등 2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한 건수가 광주 1512건, 전남 1133건 등 모두 2645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64건(광주 1053건, 전남 911건)보다 34.7%(681건) 증가한 수치다.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

면 2배 가까이(75.3%, 1509건)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2804건에서 지난해 3951건으로 40.9%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2645건이 해지, 아직 5개월이 남았는데도 2017년 한해동안 해지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증거다.

해지 이유는 폐업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수가 전체의 73.2%(광주 1134건, 전남 801건)로 가장 많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임의해약이 25.1%(356, 309)를 차지, 대부분 내수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였다. 가입자의 사망(0.9%)과 노령(0.8%)에 따른 해지는 각각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실제 지역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8월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 전망(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은 76.8로 전월

■ 광주·전남 노란우산공제 1~7월 해지 현황 (단위:건)



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광주는 전월(86.2)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81.5이고, 전남은 10.6포인트 급락한 68.3이었다. 특히 전남은 체감경기가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해 2월(68.3) 이후 1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마·중 무역분쟁과 한·일 수출규제에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기업은 경영 애로로 내수부진(74.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건비 상승(54.0%), 업체 간 과당경쟁(48.5%), 자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 폐업이나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 등의 경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공제다. 특히 복리 이자율을 제공하고,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 부금은 압류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일종의 퇴직금 역할을 하고 있다.

금조달 곤란(30.3%), 계절적 비수기(27.8%) 등이 뒤를 이었다.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경영 악화로 중간에 해지하거나 아예 폐업해 공제금을 찾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복리 이자율 제공, 소득공제, 압류 불가 등 혜택이 있는 만큼 가능한 공제를 지킬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 지원 등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8.68 (+9.20)
- ↓ 금리(국고채 3년) 1.30 (-0.01)
- ↑ 코스닥 625.64 (+6.86)
- ↓ 환율(USD) 1181.60 (-1.90)

## 해양에너지 '가스 얼라이언스' 출범식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맨 오른쪽)는 29일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에서 광역권 도시가스사 경동도시가스, 대성에너지, 미래엔서해에너지, 씨엔씨에너지와 함께 광역도시가스기업 연합체인 '가스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출범식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해양에너지는 가스 얼라이언스를 통해 지능형 수요관리, 소규모 전력 중개 등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하고,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와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제 및 운영 서비스 사업 등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시장 이해관계자의 편익 증대와 참여사 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순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송재호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회장, 우중범 대성에너지 대표이사, 김영진 미래엔그룹 회장, 황인규 씨엔씨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가스 얼라이언스는 앞으로 각 사의 담당자들과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중심의 오픈 마켓을 통한 개인 간의 전력 거래 중개, 에너지 빅데이터를 통한 부가 서비스 콘텐츠 개발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이사는 "기존 도시가스 사업의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때이다"며 "향후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고 성장시켜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 수출 기업 47%

### "하반기 수출경기 악화"

광주지역 수출기업 절반 가량이 하반기 수출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출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수출 전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 47.2%가 하반기 수출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40.6%는 호전될 것이라고 답했다.

악화 이유로는 '기준거래처의 수주감소'(54.0%), '수입국의 경기 위축'(32.0%), '글로벌 경쟁 심화'(12.0%) 순으로 꼽았다. 호전 이유로는 '신규 거래처 확보'(58.1%), '수입국의 경기 회복'(16.3%), 'FTA 활용 효과'(16.3%) 순으로 답했다.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불안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마·중 무역전쟁'(24.1%)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원자재 가격 인상'(23.1%), '환율 불안'(15.1%), '국내 고용환경 변화'(11.8%) 등을 꼽았다.

수출 애로사항으로는 '수출시장 경쟁 심화'(42.5%)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가격 경쟁력 약화'(22.6%), '자금 조달의 어려움'(20.8%), '무역 전문인력 부족'(4.7%), '해외시장 정보 부족'(4.7%) 등을 들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농협 광주본부, 범농협 노·사 상생협약 선언식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30일 오전 범농협 노·사 상생협약 선언식을 가졌다. 광주노사민정협의회와 광주시가 지원한 '2019년 광주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열린 이날 선언식에는 김일수 농협 광주지역본부장, 최영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송대범 NH농협생명 광주지역총국장, 정상수 NH농협순해보험 광주총국장, 박삼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광주지역본부(이하 광주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는 협약에 따라 ▲광주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적극 동참 ▲광주본부 및 잔존 귀농확산운동 동호회 동참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정상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작성·운영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세관, 중소기업 696개 업체 세금납부유예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상반기 세정지원 4대 패키지 활용지원으로 관할 지역내 중소기업 등 696개 업체에 광주 지역 1265억원, 여수 1조 6090억원 등 4조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유예(15일~120일간) 혜택을 주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8월부터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4대 패키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화, 1

## 세일콜

### "신보기금 역량 집중 일자리 창출 앞장"

이태용 신보 호남영업본부장

신용보증기금의 전문 역량을 집중해 지역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9일 취임한 이태용(55·사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호남영업본부장은 '포용적 금융의 선두주자'로서의 신보 역할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사회적 경제 육성, 실패 기업 재지원, 경기취약업종 지원, 매출채권보험 저변 확대 등을 펼치겠다"며 "사회공동체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신 출신인 이 신임 본부장은 광주

진흥고, 전남대 독어독문과·서강대 경영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1990년 공채 26기로 신보에 입사해 홍보실장, 광주첨단지점장, 광화문지점장, 동대문지점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그는 호남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중소기업 전문가로, 조직 내에서 두터운 보충기력과 업무추진력 및 리더십을 인정받아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 표창장 등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oticon PEOPLE FIRST

##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